

신용대출, 작년 21조 늘어 '사상 최대'

지난해 가계의 신용대출이 사상 최대폭으로 급증했다. 정부가 주택 담보대출을 억누르면서 가계 빚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신용대출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 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8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연중 증가액이 2015년 78조2000억원, 2016년 68조8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한 풀 꺾인 것이다. 이중 주택 담보대출은 37조1000억원 증가해 전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58.8조 ↑

주택대출은 줄었지만 신용대출 '풍선효과'

년(55조8000억원)보다 상승세가 잦았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급증했다. 지난해 21조6000억원이 늘어나면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전 증가액 최고치는 2016년 12조9000억원이었는데, 이보다 두배에 가깝게 늘어난 것이다. 기타대출은 일반 신용대출

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신용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연이어 출범하면서 대출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면서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 쪽으로 일

부 옮겨간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영향이 컸고 특정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저금리로 많이 나간 부분도 있다"며 "아파트 입주와 관련해 해서 계약금이나 인테리어공사 자금 수요가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1%대의 저금리 신용대출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월중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모두 주춤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 8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원)보다 증가액이 축소됐다. 지난 2010~2014년 12월 평균 증가액인 3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중도금 대출 상환이 늘면서 기존에 실행된 집담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기타대출도 연말 상여금 지급 등이 늘면서 1조3000억원 증가에 그쳐 전월(3조7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했다.

앞으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 규제책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의 기업대출은 781조 4000억원으로 한 해동안 38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 2015년 증가액(48조3000억원)보다는 낮지만, 2016년(19조3000억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12월 기준으로는 7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들이 연말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단기자금 상환에 나선 영향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연중 27조8000억원 늘어난 2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조9000억원) 보다는 증가세가 확대됐다.

뉴시스



BMW코리아, 작년 판매 '사상 최대'

전년 대비 23% 성장한 5만9624대 판매...미니, 9562대

BMW그룹코리아가 지난해 역대 최고의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10일 BMW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BMW 5만9624대, 미니 9562대가 팔려 전년 대비 각각 23.0%와 10.8% 성장했다.

자동차 부문 판매는 롤스로이스 86대를 포함해 전년 대비 21.2% 늘어난 6만9272대를 나타냈다. BMW 모터그룹은 2222대를 판매하며 전년 대비 5.6% 성장했다.

BMW 브랜드의 지난해 전체 판매량은 5만9624대로 전년 대비 23.0% 증가하면서 단일 브랜드 기준 5만대를 돌파,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

뉴 5시리즈는 2만4220대를 판매되며 전년 대비 40.3% 성장했다. 특

히 뉴520i는 9688대가 판매돼 전년 대비 22.5% 성장하며 2년 연속 수입차 최대 판매모델 1위를 기록했다.

3시리즈 판매량은 1만1931대를 기록, 1만대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16.5% 성장했다. 4시리즈 판매량 역시 19.3% 증가했으며 1시리즈는 7%, 2시리즈는 3.1%, GT 모델은 6.7% 각각 성장했다.

X 시리즈 판매량 성장도 눈에 띈다. X3가 전년 대비 6.8%, X4의 경우 11% 성장했으며, X5와 X6는 전년 대비 각각 61.3%, 43.8%까지 큰 폭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전체 X 시리즈 판매량은 9613대를 기록, 전년 대비 25.4% 증가했다.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탠디 부츠

(주)광주신세계(총괄임원 최민도)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보온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부츠를 찾는 고객들이 늘면서, 2층 탠디

매장에서는 다양한 소재와 자체 장식으로 차별화 한 부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스웨이드 소재의 앵글부츠와 큰 벨트, 단추, 링 같은 디테일이 들어간 낮은 미들힐 제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중에 스웨이드 부츠는 누백 가죽을 덧댄 감각적인 스타일에 가죽창 대신 고무창을 사용 해 눈길과 빗길 위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상반기부터 카드 포인트 '현금'으로 사용

해의 수수료 개선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금융원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 가운데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이다.

우선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4월 카드 포인트 사용비를 제한(20~30%)이 폐지됐지만 포인트 사용의 효용성과 편의성을 보다 높여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돼왔다.

이에 금융원은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하나카드와 국민카드 등 2개사만이 같은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비(非)은행계 카드사를 감안해 현금인 카드대금 출금계좌

로 입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카드 해지 시 1만 포인트 이하는 미정리 쓸 곳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자부리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 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 안내도 강화된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전월실적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전월실적 산정기간(통상 전월 1일~전월 말일)과 카드 이용금액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카드 할부나

세금, 할인된 결제액 등은 전월실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계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원은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앱,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불합리한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할 때 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1.0%)까지 더한 뒤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매겼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0.2%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작년 실업자 102만8000명 '역대 최대'

청년실업률 17년來 최고

지난해 실업자 수가 102만8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6년에 이어 2년째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1년 전(101만2000명)보다 1만 6000명 증가했다.

이는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후 가장 많으며,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00만명을 넘겼다.

앞서 통계 작성 방식이 바뀌기 전인 IMF 외환위기 당시 1998년(149만명)과 1999년(137만4000명)에 100만명을 넘긴 바 있다.

전체 실업률은 3.7%로 전년과 같았다.

청년 실업자 수는 43만5000명으로 전년(43만5000명)과 동일했다. 청년 실업률은 9.9%로 2010년 이

후 가장 높았다. 2014년부터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운 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8.1%까지 치솟았던 청년 실업률은 2012년까지 7%대를 유지했으나 2013년 8.0%로 다시 오른 후 2014년(9.0%), 2015년(9.2%), 2016년(9.8%)까지 최고치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55만2000명으로 1년 전(2623만5000명)보다 31만7000명 늘었다.

이 증가폭은 정부의 전망치(32만명)에 못 미친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2014년 전년 대비 53만3000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33만7000명으로 줄어든 뒤 2016년에는 2009년(-7만 2000명) 이래 가장 적은 29만3000명에 그쳤지만 지난해 30만명대를 회복했다.

전체 고용률은 0.5%포인트 상승한 66.6%였다. 청년 고용률은 42.5%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